

'형제경영' 막내린 금호아시아나그룹 향후 진로는

'형제의 날' 암초속 구조조정 촉각

전문경영인 체제전환... 단일 지주회사 탄력

형제간 불화, 경영권 법적분쟁 확대 가능성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8일 전격 퇴진함으로써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향후 진로가 제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의견 대립을 빚던 두 형제가 동반퇴진하는 것으로 '형제의 날'이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작업과 대우건설 매각 등 그룹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계와 금융권 등은 일단 그룹 최고경영층이 오너 일가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분리되면서 바뀔 경우 금호석유화학 중심의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대우건설 매각,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불만설이 두 사람의 퇴진을 계기로 사리진 만큼 향후 그룹의 현안 과제를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새로 그룹 회장으로 추대된 박찬구 홍보부문 부회장이 금호에서 40년 동안 근무해 누구보다 그룹의 철학과 내부 사정에 대해 밝은 만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룹 내에서도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너 체제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이 자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형제간 갈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닌데다, 이번 동반 퇴진을 계기로 감정의 끝이 깊어진 형제간 불화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박찬구 회장의 거취와 대응에 따라 구조조정 등 그룹의 진로에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삼구 회장도 퇴진 기자회견에서 "(박찬구 회장이) 본인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여러 가지 해 그룹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동생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 박찬구 회장 측이 해임 의결에 대해 반발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등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진행중인 구조조정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대내외 이미지와 신인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호가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자기자 dok2000@kangju.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금호石化 지분경쟁 본격화 되나

박찬구씨 최다 보유 속 故 박성용 회장 장남 지분 변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석유화학 부문 회장의 전격 퇴진으로 본격적인 지분경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금호그룹 내 계열사의 지분구조는 어떻게 될까?

먼저 금호산업 이후 자주회사로 확정된 금호석유화학의 지분구조를 보면 박삼구 회장의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해 4.73% (134만 6512주)다. 그의 아들인 박세창 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의 지분율은 5.78% (우선주 포함 164만 4340주)다. 이에 이들 부자의 지분율은 총 10.51%다.

경영을 맡아왔던 박찬구 회장의 지분율은 8.43%, 박찬구 회장은 지난달부터 금호석유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 보통주만으로는 9.44%, 우선주를 포함해서는 8.43%까지 지분을 확대했다. 그의 아들이 박준경 금호라이어 회계팀 부장 역시 같은 기간 지분을 확대해 보통주만으로는 9.03%, 우선주를 포함해서는 8.07%까지 지분을 확대했다. 이에 이들 부자의 지분을 합치면 16.50%를 기록, 박삼구 회장 부자의 지분에 1.5배에 달한다.

문제는 그 외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중이다.

고(故) 박정구 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아

시아나항공 전략팀 부장은 10.51% (보통주 비율 11.76%)를 보유하고 있고, 박성용 명예회장의 장남 박재영씨는 4.45%만 보유하고 있다. 보통주만으로는 4.65%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금호석유 지분 경쟁 구도에 따라서는 박성용 명예회장의 아들 박재영씨 지분 4.65%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금호산업의 최대주주는 금호석유다. 그 외 박삼구 회장이 우선주를 포함해 1.69%, 그의 아들인 박세창씨가 1.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반면 박찬구 회장과 박준경 회장은 지난달 금호산업 주식을 전량 매도, 현재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장필수기자 bungy@kangju.co.kr

강남터미널 매각 입찰 마감

롯데·현대백화점·사모펀드 응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매각 입찰에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투자펀드(PEF)인 코아FG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세계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8일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며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않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입찰에 참여했지만 최소 가격으로 제출해 인수의지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티미널 개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기자 dok2000@kangju.co.kr

고개숙인 금융권 대출 연체율

경기 회복 신규 연체 줄고 부실채권 정리 탄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다소 나아지면서 신규 연체가 줄어들고 금융회사들이 분기 또는 반기 결산을 맞아 부실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에 분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들의 대출 연체율은 3.81%로 1개월 전보다 0.28%포인트 떨어졌다고 28일 밝혔다.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3.76%에서 지난 5월 말 4.09%로 치솟았으나 6월에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달 말 3.25%로 전월 말보다 0.21%포

인트, 기업대출 연체율은 5.28%로 0.46%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들의 6월 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41%포인트 하락한 1.19%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1.69%로 0.58%포인트, 가계대출 연체율은 0.59%로 0.19%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3%로 0.12%포인트 떨어졌다.

전업카드사들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3.08%로 3개월 사이에 0.51%포인트 급락하면서 2003년 카드사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고정금리 7%대 껑충

은행별 일제 올려... 대출자 이자 부담 가중

최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 금리인 은행채 금리의 상승세가 단기 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고시금리는 연 5.26~6.96%로 지난 주보다 0.18%포인트 급등했다. 최고

금리가 지난 3월 말 7.37% 이후 거의 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주초 하나은행의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5.96~7.16%로 2주간 0.25%포인트 급등하면서 최고 금리가 7.10%를 넘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번 주초 5.85~6.85%로 2주일간 0.16%포인트 상승했으며 5월 초와 비교하면 0.59%포인트 급등했다.

외환은행은 5.75~6.45%로 2주 동안 0.34%포인트 올랐고 우리은행은 5.96~7.06%로 2주 전과 같았지만 5월 초보다는 0.37%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광주 그랜드호텔 최종 부도

광주 구도심의 대표적 호텔인 그랜드광광호텔이 28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28일 광주은행 등 금융계에 따르면 그랜드광광호텔은 전날 광주은행에 돌아온 4천만원의 어음을 이날 오후까지 막지 못함에 따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하지만 그랜드광광호텔의 은행권 대출금이 없어 피해 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 1986년 7월 문을 연 그랜드광광호텔은 지상 10층 지하 2층에 60여개 객실을 갖춘 광주 구도심의 대표적 호텔이었으나 전남 도청 이전 등에 따른 도심 공동화로 2

년전에 폐업신고를 낸 데 이어 지난 해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장필수기자 bungy@kangju.co.kr

코스피지수	1,526.03 (+1.98)
코스닥지수	504.16 (-0.49)
4.16% (-0.01)	
원·달러 환율	1,236.50원 (+15.9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류 대표이사 010-7570-7525

주택사업/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부